

KB증권, WM 명가로... 발행어음 순항, 채권판매 불티

(자산관리)

발행어음 두달만에 잔고 8천억
신규고객 대상 5% 특판 잇달아
두달간 브라질채권 수익률 20%
“고점 논란에도 투자매력 높아”

KB증권의 자산관리(WM)부문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브라질 채권과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랩어카운트 등 채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 전략이 적중했다. 연내 2조원 판매를 목표로 하는 발행어음도 순항 중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KB증권 금융상품 운용자산(AUM)은 2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말 20조 4000억원보다 25.5% 늘었다.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발행어음을 비롯해 채권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끈 영향이다.

◆ “발행어음, 연내 2조 목표”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투자은행(IB)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어음이다. 은행 예·적금 상품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정 금리는 연 3% 수준으로 일반 적금보다 높다. 하지만 KB증권(AA+)의 높은 신용등급과 모회사인 KB금융지주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이다.

현재 KB증권은 ‘연내 2조원’을 목표로 발행어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출시와 동시에 5500억원 어치를 단숨에 팔아치웠고, 수시물 판매액까지 포함해 현재 8000억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4개월 동안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은 이유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연 5% 발행어음 특판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고객 선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5% 금리 상품은 이른바 ‘역마진’ 상품이다. 보통 3%를 수익률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2% 정도의 수익은 KB증권의 자금으로 보장한다. 지난 6월 판매한 연 5% ‘KB 에이블(able) 발행어음’ 특판 상품은 하루 만에 완판됐으며, 인기에 힘입어

지난 6일 300억원어치의 월 적립식 특판어음도 내놓은 상태다.

KB증권은 발행어음 흥행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발행어음을 KB증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연내 2조원 판매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금의 절반을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하는데 투자처 발굴이 녹록치 않은 만큼 2조원 조기 달성보다는 연말까지 유연하게 판매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채권으로 두자리 수익률

올해 KB증권은 발행어음 뿐만 아니라 채권 상품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연초부터 주력 상품으로 밀었던 브라질 채권과 채권 ETF 랩어카운트 상품은 자금 몰이와 함께 기대보다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브라질 채권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익률만 20%를 넘어섰다. 당시 원해알 환율이 290원에서 310원으로 강세를 올렸다. 또 금리가 9%에서 7%로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다.

신금호 KB증권 IPS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가 안정화되면 원해알 환율이 350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점 논란이 있지만 320원까지는 여전히 투자매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상장된 채권형 ETF를 묶은 ‘KB 에이블 맞춤형 B’ 목표전환형랩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목표수익률(5.5%)을 세 차례 달성했다. 신 본부장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오르면서 기대보다도 빠르게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KB증권의 당기순이익은 1689억원으로 전년 동기(1528억원)보다 10.5% 늘어났다. 이는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통합 출범 이후 상반기 누적 기준 최대 성과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취임 6개월 만에 거둔 성적이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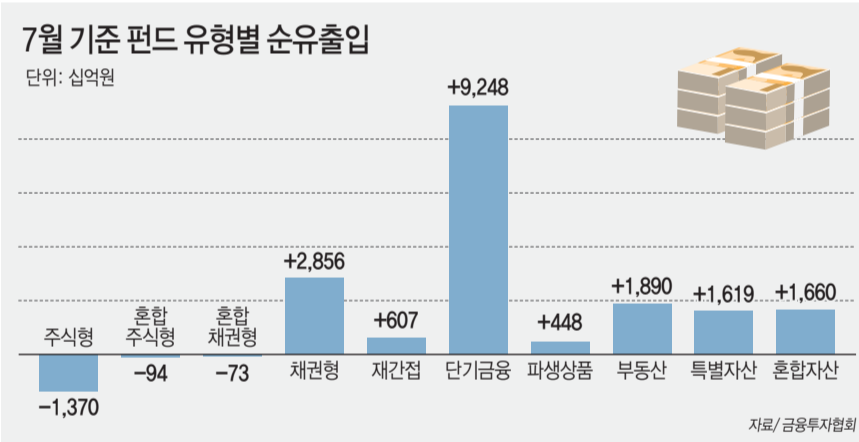
위기때 역시 안전자산... 주식형펀드 1조↓ 채권형 3조↑

금투협, 7월 펀드시장 분석

주식형펀드 순자산 77조, 4.4% ↓
국내채권형 115.4조, 해외는 8.8조

일본의 수출 보복,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투자자금은 안전자산으로 향했다. 채권형 펀드로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된 반면 주식형 펀드는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국내 펀드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보다 3조 6000억원(4.4%) 감소한 7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형에서는 5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 됐고, 순자산은 3조 2000억원 줄어든 55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부진으로 평가액이 감소해 순자산 감소규모가 컸다.



해외주식형은 순유출 규모가 8000억원, 순자산은 4000억원 감소한 21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보다 3조 2000억원(2.7%) 증가한 124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국내채권형은 2조 5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에 따라 순자산

은 115조 4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2조 8000억원 늘어났다.

해외채권형은 3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순자산은 전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8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경제지표와 증시 부진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고, 한국은행의 기준금

리 인하로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법인 단기 자금수요 해소를 머니마켓펀드(MMF)로 9조 2000억원어치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MMF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9조 4000억원 증가(9.0%)한 113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펀드 순자산은 90조 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원(2.2%) 늘었다. 특별자산 펀드는 1조 8000억원(2.2%) 늘어난 84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혼합자산 펀드는 34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4.6%)이 증가했다.

파생상품 펀드 순자산은 52조 5000억원으로 자금이 순유입됐으나 순자산 가치는 1000억원(0.2%) 줄어 들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636조원으로 전월 말보다 15조원(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대학생 투자대회 시상

키움증권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25회 키움증권 대학생 주식 모의투자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투자대회는 대학 여름방학에 맞춰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됐으며, 국내 295개 대학, 5938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1위를 차지한 이상엽 학생은 112%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김종성 학생이 100%, 강성실 학생이 77% 수익률을 각각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1위 300만원, 2위 200만원, 3위 100만원의 장학금과 키움증권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김유진 기자

KB증권 ‘달러 셀앤바이’ 서비스 개시

KB증권은 지난 8일 위탁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외국환 스왑거래 ‘미화(USD) 셀앤바이(Sell&Buy)’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USD 셀앤바이’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그 자금을 원화단기상품으로 운용한 뒤 만기에 원리금을 달러로 재환전하는 구조다. 최초 환전 시 고객의 재매수 환율을 고정해 환율변동 위험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환헤지 서비스를 외환(FX)스왑을 통해 일반 법인 및 개인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미화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우수 신용등급의 단기원화상품에 투자해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환헤지 프리미엄을 통해 연 1% 내외의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원화투자자산은 최상위 신용등급인 A1등급 채무증권으로 제한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은행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비해 추가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삼성증권 ‘해외주식 무료 체험전’

신규고객 등 대상 내달 말까지 진행

삼성증권은 편리하게 해외 투자를 체험하고 아마존 등 해외주식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무료 체험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고객 및 2017년 이후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키움증권은 이번 행사를 통해 5만원 상당의 ‘해외주식 수수료 쿠폰’을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증정한다.

증정받은 쿠폰은 이벤트 기간 중 외화를 100만원 이상 환전하고 해외 주식을 100만원 이상 매수하면 각각 환전(2만원), 거래수수료(3만원) 쿠폰이 적

용된다.

쿠폰을 이용해 해외주식을 매수한 고객들 중 10명을 추첨해 미국 아마존 주식 1주(217만원 상당·8월 12일 종가/환율 기준)를 증정한다.

‘해외주식 1주 받기’ 퀴즈이벤트도 마련했다. 매일 제시되는 해외 주식 관련 퀴즈를 맞춘 고객들 중 10명을 추첨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ETF인 ‘TDIV’를 제공한다.

퀴즈이벤트는 삼성증권 통합증권서비스를 신청한 뒤 9월 30일까지 매일 영업일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제공되는 ‘오늘의 퀴즈’ 정답을 맞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확인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키움투자자산운용

고배당 ETF 수익 올려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플러스(+)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OSEF 고배당 ETF의 수익률이 연초 이후 기준으로 1.53%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06%, 12.67% 하락했다.

1년 수익률도 KOSEF 고배당은 -2.77%로 같은 기간 코스피 -15.89%, 코스닥 -25.26%를 크게 웃돌면서 하락장에서 견고하게 수익률을 지켰다.

/김유진 기자